

사랑하는 여러분께

북한의상황

북한이 새“초대형” 다연장 로켓포를 자랑하는 8월 한달 간 다수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의 이런 행동은 남한의 전쟁 도발에 대한 경고이며 32년만에 중거리 크루즈 미사일 실험을 한 미국의 “위험한” 행동에 대한 대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북은 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사건은 계속되는 협상의 물을 흐려 놓고 있습니다. 동시에 트럼프 미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사정은 어렵습니다. 최근 홍수로 인해 라선에 피해가 크고 지상으로 떨어진 전선으로 인해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연중이 시기가 되면 발생하는 식량 부족현상으로 인해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옥수수를 줌도독질하여 빼돌리고있습니다. 북한은 크리스천들을 더 많이 체포하고 있으며 중국은 교회에 출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합법적으로 중국에 체재하는 북한인까지도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계속해서 탈북민들을 잡아 북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국제 사회로 돌아가,북한 무역 제재로 인해 사람들에게 손실을 초래한 비용에 대한 최근 보고서가 여기 있습니다. 미국무성은 미국시민권자의 북한여행제한 조치를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대북구호업무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조선의그리스도인벗들, 이그니스공동체, 그리고유진벨재단의 사역에 이 무역제재와 여행제한이 많은 어려움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이 기관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합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여섯 명의 한국인과 데일리NK기자 최송민(가명) 형제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동안 구금됐다가 풀려난 목사들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강 학교

2학기가 시작되었고 이 때가 학교를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2년간 한국과 태백시안에 큰 인구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고 다른 어떤 선진국보다 노령화가 빨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생인구도 점차 줄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태백 내 여러유치원과 방과 후 학교가 학생부 족으로 인해 문닫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생명의강’ 학교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내 타 지역의 학부모들이 저희학교에 관심을 보였지만 기숙사가 없어 학생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의 변화가 있었고 이런경향 이 저희학교가 시작될 때보다 재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국경제도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등록금만으로는 부족한 재정상황에 도움을 주었던 기부금에도 직접적 영향을 주었습니다. 등록금과 기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현저히 줄어든 현재상황으로선 프로그램과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이 상황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들을 보도록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또한 은인들을 보내 주고 있습니다. 2016년에 재학했던 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버스기사로, 그리고 다른 여러작업으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주방장인 자매님도 저희학교에 맛있는 점심식사를 희생적인 봉사로 제공해주고 있으며 예수원도 학교를 여러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전문성과 경험, 지혜를 겸비한 여러 지체들도 자원봉사로 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으로 이사를와서 홈스쿨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저희학교가 섬기는 기회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래설명) 레크리에이션이나 북한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 지역 공립학교에 소개하고 저희학생들이 여러 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원봉사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귀한 경험을 쌓고 학교에는 재정적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학교 방향에 대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이며 아주 흥미로운 가능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잘 협조하며 분별해 나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 계획과 삼수령센터

지난달, 스티브 윤 선교사와 아내 조이 선교사가 태백으로 이사를 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가족이 도착해서 적응중입니다. 북한에서 일하는 것을 준비하기위해 한국어를 배우러 두 미국자매도 보내 주셨습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자매가 6개월간 이 곳에 올 예정이고, 예수원에서 지원훈련을 받은 브라질 자매가 태백으로 돌아오기 위해 준비중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중심은 예수원과 삼수령센터 가족이지만 하나님께서 새 동역자들과 친구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도록 보내셔서 저희 공동체의 일부분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있고, 올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살 집을 스스로 구해야 하고 저희들은 한국어 공부를 위해 임시장소들을 다양한곳에서 찾고 있습니다. 삼수령 센터의 다음 건축단계인 공동체 마을을 건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건축이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시점이 되었고 점점 더 절실해질것입니다.

큰 관건은 역시 재정입니다! 이번 건축단계에 소요되는 경비가 60억원입니다. 이 뿐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첫단계 토목공사를 해 오면서, 내년 봄 건축을 계속해 나가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10여년전인 허가를 받은 건축설계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앞에 놓인 여러 의무조항이 상당 부분 변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인 구조가 되게 하기 위해, 공동체 마을 설계를 변경하는 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이 대지를 임대해 준 산림청으로부터 인준받은 원래의 실시계획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지체로 인해 낙담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진척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력한 기름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저희의 모금활동을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시고, 설계변경과 인허가신청이 순조롭고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이 이뤄지면 북한 개방의 때를 준비하는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강' 학교를 위해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고 (기숙사포함), 언어공부와 북한 선교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진행, 태백 지역으로 오고 있는 사역자 가족들을 위한숙 소,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교육을 포함한 그들의 지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금을 위해 저희의 파트너가 되실 분이나 함께 동역하실 분을 알고 계신 경우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과 네 번째 강계획, 그리고 북한을 위해 함께 일하기 위해 태백으로 오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이름으로,

벤토리신부

네 번째강계획대표

The Situation in the North

Tension has been increasing on the Korean Peninsula as North Korea tested short-range missiles throughout the month of August while bragging about their new "super-large" multiple rocket launcher. The North has said that this is a warning to "warmongering" South Korea and in response to America's "dangerous" moves referring to the U.S.'s first test of medium-range cruise missiles in 32 years. All of this certainly muddies the waters in terms of continuing negotiations even though the North states that they are still committed to talks. At the same time, U.S. President Trump speaks highly of North Korea's economic potential.

Meanwhile back in the countryside things aren't so good. There has been recent flooding causing damage in the Rason area as well as indirect deaths from downed power lines. Food is scarce at this time of year leading to significant pilfering of corn by all sorts of people including soldiers. The North is also increasing arrests of Christians and China has been repatriating North Koreans who are in China legally because they have attended Christian churches. Chinese authorities continue to arrest North Korean refugees and send them back as well.

Back to the international stage, here is a recent report of the human cost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U.S. State Department has extended the travel restriction on U.S. citizens going to North Korea for another year starting this month. Both the sanctions and the travel restriction have added to the normal difficulties of providing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nd sharing the love of Christ with the people there by organizations such as Christian Friends of Korea, Ignis Community and the Eugene Bell Foundation. Pray for these efforts to continue forward despite all the obstacles.

Remembering Our Brothers in Prison

We continue to pray for six South Koreans held in the North as well as Daily NK journalist, Choi Song Min (alias). Here's information on the pastors and others who have been detained and released. Please remember them in your prayers.

The River of Life School

We have started second semester and see this as a critical time for the school. There has been a major population shift in the country and our city of Taebaek over the past few years. South Korea has the lowest fertility rate in the world and is aging faster than any other developed country. As a result, the population

of school-age students continues to decrease. In recent years a number of kindergartens and after-school programs in Taebaek have closed for lack of students. This trend has affected The River of Life School as well. While families in other parts of the country have expressed their interest in our school, our lack of dormitories has prevented them from coming. Add to this shifting attitudes about education and it all adds up to our school being smaller than when we started. The nation's economy has been sliding for several years. This has had a direct affect on donations that the school has depended on to supplement tuitions. With both tuitions and donations lower than ever, the school has had to cut back on both program and staffing. It has not been easy. However, we see God at work in all of this! He is challenging us to see the new things that He is doing. He is also sending us people. The father of one of our former students, class of 2016, has come back to volunteer as our new bus driver and has been helping in other ways. Our cook has been working sacrificially to produce delicious lunches and Jesus Abbey has also been helping out. Other individuals in the area with a variety of expertise, experience and wisdom are volunteering as "guest lecturers." We also see opportunities to provide services to international home schooled students who are coming our way (see below). We have been developing recreational and North Korea focused programs to take out to public schools in the area and our students have served in a number of volunteer opportunities. This has given our students valuable experience while some of the programs bring in income for the school. We are seeking the Lord's guidance as to the direction for the school next year with a lot of very interesting possibilities ahead of us. Join us in praying for discernment and that we stay in sync with God!

The Fourth River Project and the Three Seas Center

Last month, we mentioned that Steve and Joy Yoon were coming to Taebaek. They have arrived and are settling in. The Lord has also sent two American women to come learn Korean here as preparation for their own work in North Korea. They have jobs teaching English even as they learn Korean. Another woman is coming for six months and our Brazilian friend who just completed Jesus Abbey's three-month postulancy program is getting ready to come back. Our community continues to expand. The core community is Jesus Abbey and our Three Seas Center household but God has been sending new co-workers and friends to join in this work, to be part of our greater community. And, more people want to come, are preparing to come. At this point, those who come have to find housing for themselves while we work out various temporary spaces for language study. We need to build Community Village, the next phase of the Three Seas Center! The need is greater than ever and just keeps growing. The big issue is, of course, funding. This phase is roughly \$6 million dollars. But that is not

all. As you know, we have been doing the first phase of site excavation with the hope of continuing the next step in the spring. However, the plans that we are working from date back to over ten years and our requirements have changed considerably. We are in the process of redesigning Community Village to better serve the purposes that God has shown us as well as to be more economical. As we finalize the new design, we will also have to get a major change to the original plan authorized by the Forestry Department from whom we lease the land. All of this needs a mighty anointing from God to carry it forward especially in the face of discouraging delays. Please pray with us that the Lord bless our fund-raising efforts and that all the design and permitting work go smoothly and quickly. This will enable us to engage in the work of preparing for the opening of North Korea in the most effective way. It will provide the best facilities for The River of Life School (including dorms), the best facilities for language and North Korea preparation programs, housing for families coming and all that is needed for their support including care and education for their children. It's a big job but God can do it! We need your prayer

If you know anyone who would be interested in joining us as partners in the funding or the work itself, let us know. We will be glad to discuss any of this more fully with anyone.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for North Korea, for The Forth River Project and for all who are coming to work together in Taebaek for the sake of North Korea.

In Christ's Name,

Ben Torrey

Director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www.thefourthriver.org